



즉시 배포용: 5/15/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연례 50개주 안전벨트 시행 이니셔티브에
뉴욕주 동참을 발표**

**“찰칵 채우지 않으면 딱지 - 국경에서 국경까지” 캠페인에 의거 탑승자 시트벨트 위반은
운전 면허증에 벌점 3점**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5월 18일 월요일부터 5월 31일 일요일까지 시행될 전국적 **클릭잇 오어 티켓 - 보더투보더** 단속 동원의 일환으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거나 어린이를 구속하지 않고 수송하는 운전자와 동승자들에 대한 단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의 지시로 주 교통부와 고속도로청은 캠페인 동안 도로에 “클릭잇 오어 티켓” 메시지가 뜰 가변 메시지 보드를 마련하였습니다.

1984년에 뉴욕주는 운전자와 앞좌석 동승자에게 안전벨트 사용을 요구하는 법안을 미국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후, 2012년의 467명과 2013년의 446명을 포함하여 수 천명의 생명이 시트벨트와 아동 구속장치 덕분에 살았습니다.

“안전벨트가 생명을 구한다는 증거는 분명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안전벨트 체결만으로 운전자와 동승자들을 위해 도로 안전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캠페인은 피할 수 있는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뉴욕주민들이 안전벨트를 체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전국적 강제 노력의 일환으로 뉴욕주 경찰, 카운티 및 지자체 법집행 기관은 표시된 차량 및 비표시 차량을 타고 국경에서 국경까지의 검문소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주의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에게 공격적으로 티켓을 발부하고 안전벨트 위반을 찾기 위해 배회할 것입니다. 이 연례 캠페인은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가 연중 후원하는 많은 교통안전 이니셔티브 중 하나입니다.

현재 뉴욕주 운전자 중 91%가 안전벨트를 매는 데 그것은 전국 평균보다 4% 더 높은 것입니다. 뉴욕주 운전자들은 2010년 이래 90% 이상의 안전벨트 사용률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성취에도 불구하고 2011년-2013년 사이에 뉴욕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앞좌석 승객의 약 32%가 안전벨트 미체결자였습니다.

NHTSA가 개발한 **클릭잇 오어 티켓** 캠페인은 모든 차량 탑승자들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생명을 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NHTSA에 따르면 미국에서 2013년에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다가 교통사고로 9,580명의 승용차 탑승자들이 사망하였습니다. 전국적 동원을 뒷받침하여 뉴욕주 경찰, 카운티 및 지자체 법집행 기관들은 5월 18일 오후 6시-10시에 **클릭잇 오어 티켓** 특별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웃 주들인 코네티컷, 매스추세츠,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및 버몬트의 경찰 조직도 이 동원 노력에 참여할 것입니다. **클릭잇 오어 티켓** 캠페인의 목적은 안전벨트 착용 강제와 대중 인식 제고를 통해 뉴욕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망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뉴욕주 보건부에 의하면 한 달에 약 700명의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들이 병원 치료를 요구할만큼 심한 부상을 당합니다. 2011년에는 뉴욕주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 8,309명이 충돌로 입은 부상으로 입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상자 치료로 응급실 및 입원료로 약 1억 2700만 달러가 발생하였는데 공공 기금이 이러한 비용의 12%(약 1600만 달러)를 지불해야만 하였습니다.

뉴욕주 차량부 데이터는 전주 법집행 기관들이 2014년에 모든 앞좌석 탑승자와 16세 미만 동승자는 안전벨트를 매어야 한다고 지시하는 차량교통법 1229-c조의 위반으로 운전자들에게 약 198,000장의 티켓을 발부했음을 표시합니다.

뉴욕주 하이웨이의 안전 향상에 헌신하는 비영리 기관인 교통안전관리연구원(ITSMR)은 앞좌석 탑승자들 사이의 안전벨트 사용율이 낮 동안 보다 밤에 더 낮고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하는 안전벨트 미착용 앞좌석 탑승자들은 여성보다 남성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말합니다(63% 대 37%).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하는 안전벨트 미착용 앞좌석 탑승자들의 가장 큰 부분은 30-39세(19%)와 40-49세(15%)였습니다.

뉴욕주의 탑승자 안전벨트법 주요 내용:

- 앞좌석에서는 운전자와 각 탑승자가 안전벨트당 한 명씩 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벨트를 체결하지 않는 운전자와 16세 이상 앞좌석 탑승자는 각각 최고 \$5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DJ급 연습 면허증, DJ 제한급 또는 DJ급 운전면허증 보유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탑승자는 모두 연령이나 좌석 위치에 관계 없이 안전벨트로 구속되어야 한다.
- 16세 미만의 각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거나 적절한 아동 안전 구속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구속 시스템은 제조업체가 결정한 아동 신장 및 체중 권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아동의 사이즈에 따라 구속 시스템은 안전 시트 또는 무릎 및 어깨 벨트와 조합하여 사용되는 부스터 시트일 수 있다.
- 운전자는 16세 미만의 각 동승자가 이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운전자는 위반당 \$25 ~ \$100의 벌금과 운전면허증 벌점 최고 3점을 받을 수 있다.

뉴욕주 경찰국장인 **Joseph D'Amic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통계는 시트벨트 착용이 생명을 구하고 충돌 관련 부상 수를 줄임을 나타냅니다. 뉴욕주에서 안전 구속장치는 옵션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여러분의 자동차에서 벨트를 매지 않은 운전자나 앞좌석 탑승자 또는 부적절하게 구속된 아동을 적발하면 티켓을 발부할 것입니다. 뉴욕주 경찰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원합니다.”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의 커미셔너보인 **Chuck DeWees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벨트 체결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고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실 자동차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들 중에서 벨트를 매지 않은 사람들이 맨 사람들보다 **8배** 더 입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모든 뉴욕주민들이 차량에 탑승할 때는 벨트를 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NHTSA 지역 행정관 **Thomas Louizou**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1984**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안전벨트법을 제정하여 전국을 선도하였습니다. **1985**년 **1월 1일**부로 안전벨트 사용이 뉴욕주에서 기본 법률이 되기 전에는 앞좌석 탑승자의 **16%**만 안전벨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감사하게도 그 수치가 **91%**입니다. 안전벨트 사용 증가는 뉴욕주에서 사망과 중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뉴욕주는 모든 운전자와 각 동승자들이 탈 때마다 매번 안전벨트를 체결하도록 그들에게 벨트 사용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계속 강화해야 합니다.”

경계-경계 탑승자 보호 대기관 검문소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ttps://www.hightail.com/download/bXBZdFdUQzc1UjU4SjhUQw>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